

가수 류수정, 러블리즈 지운 '다크팝'...밴드 결성한 이유

미국 '다크팝' 아이콘 자일로와 협업
밴드 투록스 결성 "지속적 활동할 것"
"자일로에게 즉흥적인 연기 배웠다"
"팝에 자신감 생겨...글로벌 팬 타깃"

그들 '러블리즈' 류수정(26)을 아는 사람이 라면, 솔로 가수 류수정은 낯설 것이다. 홀로 서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자신의 색깔을 쌓고 있다. 꾸밈없이 감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표정을 지우고 반항기 있는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는 욕심은 그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만든다.

두 번째 미니앨범 '투록스(2ROX)'는 가히 파격적이다. 류수정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모습을 조명했다. 때론 고집스러운 나,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은 사는 나, 그리고 질투와 집착으로 일그러진 사랑을 하는 나를 그렸다. 장르는 모두 '다크팝'이다. 퇴폐적이면서도 개성 가득한 분위기다.

이번 앨범이 더 특별한 건 미국 2세대의 팝 아이콘 '자일로(XYLØ)'와 듀엣으로 발표하는 것이어서다. 자일로는 당초 남매 듀엣이었다가 메인 보컬인 페이지 더디(Paige Duddy) 1인 체제로 바뀐 밴드다. 류수정은 자일로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내 밴드 투록스를 결성하게 됐다.

"자일로와 이미지 적으로 잘 맞을 거 같았어요. 자일로의 인스타를 보면 힙한 무드 안에 러블리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음색도 잘 맞을 것 같았고요. 저는 허스키한 편인데 자일로는 썬한 보컬이에요. 소셜미디어 DM(다이렉트메시지)을 보냈더니 K팝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흔쾌히 하겠다고 해주었어요."

앨범 작업은 류수정은 한국에서, 자일로는 미국에서 하는 형태였다. 이들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로 앨범을 채웠다. 각자 소재를 나누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의 가사를 썼다. 소통하는 데 어려움도 없고 수월하게 흘러갔다.

"자일로가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있었어요. 선공개 무대 연습을 하고, 뮤직비디오 2곡을 다 찍고 갔죠. 대화는 영어로 했는데 더듬더듬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좁은 방에 둘이 있다 보니 계속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낮을 가리는 편이어서 빨리 친해져서 헤어질 때 아쉬워서 눈물도 났어요. 꾸준히 연락하고 하면서 편지를 써주고 했어요."(웃음)

전곡은 모두 영어 가사다. 한국어는 3-4마디 정도 섞여 있을 뿐이다. 자일로와 함께 국내 음악방송 활동을 하는 것은 무리라 방송에서는 보기 어렵게 됐다. 대신 1인 버전 무대를 공연 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앨범 발매 자체는 글로벌 팬을 타깃으로 한다. "한국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리스너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며 "자일로가 미국 LA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캐나다 리스너들이 많더라. 그쪽에서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겠다 싶었다"고 했다.

자일로와 작업으로 배운 점도 많다. "나는 짜여진 코레오를 하는데 익숙하다. 반면 자일로는 즉흥적인 연기를 잘 하더라"며 "내가 도와주거나 자일로가 현장에서 노는 걸 알려줬다"고 했다. 이어 "자일로가 바이브가 남다르다. 되게 많이 배웠다"며 "나도 즉흥적인 것도 많이 연구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번 계기로 팝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밴드라는 점, 듀오 결성 작업물이지만 류수정의 개인 앨범에 수록됐다는 점이 독특하다. 류수정은 "저도 기타를 자주 사용하고 자일로도 기타를 좋아한다. 뮤직비디오에서 기타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일로가 지난해 한국에 와서 쇼케이스를 했을 때 스폰서로 선공개

곡 '배드 걸스(BAD GRLS)' 기타 퍼포먼스를 했다"고 밝혔다. "자일로를 초청해왔기 때문에 류수정 앨범으로 나온 것이다. 지속적으로 투록스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투록스 앨범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러블리즈 류수정은 맑고 청순한 소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류수정은 새로운 아티스트 같다. "팁 색깔이 너무 짙고 여러여러한 소녀 같았어요. 음악과 의상이 그래서 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예전과) 비슷한데 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러블리즈 때 했던 것들보다 다양한 시도 안에서 저의 색깔을 지켜나가는 게 제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도전에 멤버들도 응원하고 있다. 멤버들은 솔로 가수 류수정의 음악 자체를 좋아한다. 덕분에 류수정은 자신감을 얻고 있다. "예인이는 무비 나오면 퀄리티를 항상 봐줘요. '진심으로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쁘다. 헤어메이크업은 누가 했어? 피디님은 누구야?'라고 실질적인 것들을 물어봐요. 결과물이 좋았다는 거겠지요? 지수 언니는 제 음악을 많이 들어줘요. '혼자서 해나가는 게 자랑스럽고 다른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만 하면 돼'라고 해주거든요.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인데 언니 얘기를 듣고 걱정을 덜었어요."

올해는 러블리즈로 데뷔한 지 10주년이다. "그때그때 진심으로 음악을 대했다"는 그는 앞으로는 순수하게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저희끼리는 '벌써 10년이야. 징그러워' 정도 로만 이야기했어요. 기념이다 보니까 다들 뭘 하고 싶어 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해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를 하기도 해서 이야기만 나누고 있어요."

솔로 가수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독립 레이블 하우스 오브 드림스(House of Dreams)로 이직한 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졌다. "팁에서는 짜여진 대로 했는데 지금은 선택지가 많아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편이에요. 돌아켜보니 아이돌과 싱어송라이터의 차이점이 많아요. 제 시간이 많이



졌어요. 팀 활동할 때는 공연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티케팅을 먼저 한 뒤에 스케줄이 생기면 8명이 같이 맞춘 건데 혼자 빠질 수 없잖아요. 이제 혼자 하다 보니 공연도 보면서 스스로를 돌보게 됐어요. 좀 더 안정적이네요."

올해는 앨범을 많이 낼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투록스 앨범을 준비하면서 남겨둔 여름철의 노래를 발표할 생각이다. 러블리즈

대표곡처럼 대중적인 곡도 하고 싶다. "혼자 곡을 내고 음악을 해나가는 게 2년 정도 됐어요. 아직 적다고 생각해요. 러블리즈 활동할 때는 특정 곡들 빼고는 코어 팬들이 좋아하는 곡이 많았어요. 대중보다는 음악 하는 분들이라든가 남성 팬들이 많았죠.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여러 장르에) 시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음악도 누군가 들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프로미스나인, 하이브 걸그룹이네...K팝 남성팬 확장력 확인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두 번째 단독콘서트 개막



3.5세대 K팝 걸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은 쟁쟁한 4세대 K팝 걸그룹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진 '2024 fromis_9 concert 'FROM NOW.'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프로미스나인의 경쟁력을 증명(證)했다. 인터파크 티켓 예매자 통계에 따르면, 이번 프로미스나인 콘서트의 예매자 비율에서 남성은 무려 88.4%를 차지한다.

최근 인기 보이그룹 콘서트뿐 아니라 인기 걸그룹 콘서트 예매율에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K팝 업계엔 코어 팬은 여성이 많고 남성은 문화소비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프로미스나인은 남성 팬덤도 충분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고, 이런 K팝 팬덤 외연성의 확장을 증거한

다. 프로미스나인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모회사인 하이브(HYBE)가 고민 중인 '라이트 팬덤'을 늘리는 지점에도 맞물린다.

반대로 프로미스나인이 남성 코어 팬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다. 사실 일정 부분 맞는 지적이다. 2017년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걸그룹 육성프로젝트 '아이돌학교'를 통해 결성돼 이듬해 데뷔한 프로미스나인의 초창기 세계관은 '환상 속 소녀'였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들려준 '편!' '유리구두' '러브밤' 그리고 '환상 속의 그대'가 그런 맥락에 속해 있다. 남성의 환상을 자극하는 성향이 짙다는 인식이 컸다.

하지만 이번 콘서트 그 편견을 깨는 자리였다. 작년 6월 발매한 정규 1집 '언락 마이 월드(Unlock My World)'에서 보여줬던 메시지를 녹여냈다.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가 프로미스나인 멤

버들의 목표였는데, 이를 충분히 실현했다.

인트로 퍼포먼스와 함께 한 첫 곡 '인 더 미러(in the mirror)'부터 그런 오해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선언이었다. "걸스 인 더 미러(Girl in the mirror) / 열은 미소 속에 뭘 / 깊이 숨겨져 / 나만은 알아야겠어 / 비밀스러운 나조차도 잊은 룰(Rule) / 후 아 유(Who are you)?" 인위적인 편견이 주축인 세간의 오해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찾는 자각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된다.

실제 1년4개월 만에 연 두 번째 콘서트인 이번 무대에서 프로미스나인 출격 성장했다. 2022년 10월 프로미스나인이 KBS 아레나에서 펼친 첫 번째 콘서트 '러브 프롬.(LOVE FROM.)'도 객석에서 지켜봤는데, 그 때도 충분히 스스로 단독 콘서트를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줬다.

그런데 2배가량 규모가 더 커진 공연장에서, 그것도 팬들의 시선이 더 잘 맞는 구조의 무대에서 프로미스나인 멤버들은 남다른 리듬감을 부여하며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다.

프로미스나인이 4세대 대세 걸그룹들의 인기 요인인 걸크러시, 세련미 등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려한 선, 멤버들 간 주고 받는 워트 등 힘을 줄 수 있는 서사도 충분하다.

이로 인해 프로미스나인은 K팝 걸그룹의 고전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K팝 걸그룹들이 세대를 거쳐 진화해가며 여성 팬들을 끌어모으는 확장성을 발휘했다면, 프로미스나인은 1세대와 1.5세대 걸그룹들이 갖고 있던 청순함과 부드러운 이미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다른 식으로 K팝 팬들의 지분을 확보 혹은 확장해왔다. 공식 응원봉인 '플로봉'을 콘서트 현장에서 처음 들고 드레스코드인 파랑에 맞춰 피부가 파란 스펀지와 아바타 분장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프로미스나인 팬덤 '플로버'의 힘이다. 백지현은 "플로버 덕분에 콘서트가 완성"이라고 기뻐했다.

뉴시스

인디아 아이슬리, 차은우 뮤비 출연



미국 배우 인디아 아이슬리(31·India Eisley)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솔로 데뷔곡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

28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미국에서 아이슬리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특히 아이슬리는 아르헨티나 출신 영국 배우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줄리엣으로 전 세계적 팬덤을 구축한 올리비아 핫세(73)의 딸이다. 아이슬리는 드라마 '미국 심대의 비밀 생활' 시리즈, 영화 '록 어웨이', '관종', '언더월

드 4 : 어웨이킹' 등에 출연하며 모친 경력의 뒤를 잇고 있다. 모친의 외모를 닮아 신비로운 이미지가 풍긴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차은우와 아이슬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두 사람의 작업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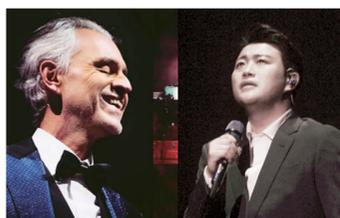
차은우는 내달 15일 첫 솔로 앨범을 낸다. 차은우가 그룹이 아닌 솔로로 다수의 OST를 발매한 적은 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내걸로 솔로 앨범을 내놓는 건 지난 2016년 아스트로로 데뷔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같은 달 1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첫 팬콘서트 '2024 저스트 원 텐 미니츠 [미스터리 엘리베이터]'(Just One 10 Minute [Mystery Elevator])에서 이번 앨범에 수록되는 신곡 전체를 들려준다. 이 팬콘서트는 서울에 이어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에서 펼쳐진다.

한편, 차은우는 오는 3월1일 첫 방영 예정인 MBC TV 새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에 출연한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김호중에게 신곡 선물

가수 김호중이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에게 신곡을 받는다. 28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호중은 보첼리가 작사·작곡한 곡을 부를 예정이다. 보첼리는 클래식 단독쇼를 앞둔 김호중에게 먼저 곡 선물 의사를 밝혔다. 김호중은 보첼리 재단 홍보대사로 발탁된 상태다. 아시아 최초다. 이탈리아 방문 당시 보첼리가 자신의 집에 초대해 공연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3월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연다. KBS 70인조 교향악단과 함



께 한다. 2022년 세계 3대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와 합동 공연을 연 데 이어 보첼리와 무대도 선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